



www.eulji.ac.kr

# 을지대학보

T H E E U L J I U N I V E R S I T Y T I M E S

제298호

2024년 5월 3일 금요일

1967년 12월 1일 창간

발행인 홍성희 주간 문보영

편집장 신희진 디자인 명진C&P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TEL 031-740-7126

FAX 031-740-7328 E-mail hakbo@eulji.ac.kr

학보사 인스타그램



학보사 카카오톡 채널



을지대학보 제298호 CONTENTS

- |    |  |    |                                     |    |                              |
|----|--|----|-------------------------------------|----|------------------------------|
| 01 | <b>1면보도</b>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제3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 05 | <b>특집</b> 신입생을 위한 성남캠퍼스 교내 편의시설 안내  | 09 | <b>학생</b> 대퇴사시대              |
|    | <b>학내보도</b> 학내소식                           |    | <b>사회</b> 비계삼겹살 논란에 얽힌 사회 현상과 규제 방안 |    | <b>특집</b> 한국테마파크의 역사         |
|    | <b>대학원·의료원·동문</b> 소식                       |    | <b>문화</b> 문신사 합법화 논의                |    | <b>기자수첩</b> 죽을 권리            |
| 04 | <b>인터뷰</b> 미래융합대학 휴먼서비스학부 학생회장 이주은         | 08 | <b>지식</b> 범죄에 맞서는 AI 탐지 기술          | 12 | <b>을지대학교 발전기금·장학금 모금 캠페인</b> |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제3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을지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임숙빈)이 지난 4월 26일 오후 2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일현홀에서 '제3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서식에는 홍성희 을지대학교총장을 비롯한 김관복 의정부캠퍼스 부총장, 임숙빈 간호대학장, 장연국 의정부시보건소장,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을 축하했다.

선서식에서 간호대학 3학년 학생 192명은 나이팅게일 선서와 촛불의식을 통해 나이팅게일의 박애정신과 숭고한 소명을 가슴에 되새겼다. 더불어 간호 윤리와 간호 원칙을 낭독하며 미래 간호인으로서 생명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표 선서자인 김지수, 최은서 학생은 "의료 실습 현장에서 선배 간호사들이 환자들과 소통하고 환자 치료에 임하는 자세 등 전문적인 간호 능력을 배우는데 집중하겠다"라며 "후에 정식 간호사가 됐을 때 실습에서 터득한 간호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과 빠른 치유에 최선을 다하는 백의의 천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선서식을 마친 학생들은 대학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 약 1,000시간 현장실습을 한 후 국가고시를 거쳐 간호사로 근무한다.

홍성희 을지대학교총장은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일생을 환자에게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전문 간호인으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며 "오늘 여러분이 굳은 다짐을 통

해 을지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인간사랑·생명존중' 실천과 함께, 환자에 대한 사랑과 전문성을 겸비한 간호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을지대학교 간호대학은 첫 졸업생을 배출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23년 연속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생 전원 100% 합격이라는 대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





을지대학교 한마음봉사단

## 한마음봉사단, 의정부 복지기관 2곳과 업무협약 체결



▲ 을지대학교-신곡노인종합복지관 업무협약식



▲ 을지대학교-녹양종합사회복지관 업무협약식

을지대학교 한마음봉사단(단장 한승진)이 의정부 지역사회 봉사 활성화를 위해 복지기관 2곳과 힘을 모은다.

4월 5일 을지대에 따르면 한마음봉사단은 이날 의정부 녹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신흥균)과 업무협약을, 이에 앞서 3월 28일에는 신곡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정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마음봉사단은 두 기관과 ▲사회봉사활동 활성화 ▲맞춤형 봉사활동 프로그램 및 교육 사업 ▲사업수행을 위한 상호 인적·물적 자원 교류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는 중점 사업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한승진 한마음봉사단장(을지대학교 레저산업전공 교수)은 “2021년 (의정부캠퍼스) 개교 이후 열 번째, 열한 번째 협약기관으로 신곡노인종합복지관·녹양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활동하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호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료인공지능학과

## 을지대학교, ‘의료 인공지능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 협약 체결

을지대학교는 지난 3월 4일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의료기기 전문 기업 VNTC(벨류엔드트러스트)와 의료 인공지능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쪽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산학과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산학과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사업 ▲학생 인턴쉽 및 취업 기회 제공 ▲대학과 산업체 보유 연구시설 및 시설 시설 활용 ▲기타 협력사업 추진 및 교류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호철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강민수 을지대학교 대학원 의료인공지능학과 학과장, 노경석 VNTC(벨류엔드트러스트) 대표이사, 최혜원 VNTC 연구소장이 참석했다.

김호철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지대학교 방사선학과 교수)은 “이번 협약은 VNTC의 혁신 기술과 을지대학교의 교육·연구 역량을 결합해 의료와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춘 미래 인재양성과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VNTC는 세계 최초로 의복형 척추측만증 의료기기를 개발한 의료기기 전문기업이다.

노경석 VNTC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척추 전문 의료기기 업그레이드 버전 상용화에 관한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의과대학 의학과

## 을지대학교 김동욱·송병주 교수 정부 포상 수상



▲ 김동욱 교수

▲ 송병주 교수

지난 3월 21일(금) ‘제17회 암 예방의 날’ 정부 포상에서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동욱 교수가 홍조근정훈장 수훈을, 외과학교실 송병주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동욱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새로운 항암제 개발을 주도하고, 국내에 조기 무상 도입으로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등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김동욱 교수는 현재 을지대학교의료원 산하 의정부·대전·강남 등 3개 을지대병원에서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을지대학교에 ‘백혈병오믹스연구소’를 개설해 초정밀 유전자 진단법과 차세대 국산 표적항암제 개발을 위한 여러 임상 중개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이날 시상에서 유방암 명의로 잘 알려진 을지대학교 의대 외과학교실 송병주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송병주 교수는 유방암 병변 부위를 최소한으로 표적 절제하고, 유방을 보존하는 감시림프노드절제술 시행을 통해 유방암의 치료 결과를 높여 환자의 만족도 상승 등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건과학대학 안경광학과

## 을지대학교 임현성 교수, 릴레이 과학강연 첫 주자로 나서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임현성(학과장) 교수가 8개월 동안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학강연 프로그램의 첫 강연자로 나선다.

3월 29일 오후 7시 인천광역시 연구의 인천대학교에서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임현성 교수가 ‘생활 속 시력 관리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시민 대상 과학강연 프로그램인 ‘금요일에 과학터치’로, 오는 11월까지 서울과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을 순회하며 릴레이 방식으로 열렸다.

‘금요일에 과학터치’는 다양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교수, 연구원들이 최신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시민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학지식 나눔의 장이다.

임현성 교수는 2023년 3월 ‘사이버 멀미의 진단과 관리방법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주요 경력은 현재 대한시과학회 학술부회장, (사)대한안경사협회 교육부회장, 한국보건의료윤리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것이다.

임현성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연을 하게 됐고, 올해는 첫 강연자로 나서 더욱 보람있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전공 분야인 시력 관리의 관심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래융합대학 휴먼서비스학부 레저산업전공

## 을지대학교 레저산업전공, 여성전문 피트니스 ‘핏걸’과 MOU 체결

을지대학교 레저산업전공이 핏걸 덕점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월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핏걸 김민기 대표와 을지대학교 레저산업전공 김준수 교수가 참여했다.

최신 유행하는 부티크 형태의 피트니스와 스포츠의 상생 발전, 나아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전문 인력과 교육 지도자 양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민기 핏걸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활 및 피트니스 건강, 특히 여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을지대학교의 전문성과 접목된 신개념 체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성화하겠다”라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피트니스계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특히 양 기관의 교육 협력을 통해 전문가 양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핏걸은 여성 전문센터로서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이며, 최신식 운동장비를 보유해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 증진과 체력단련이 필수가 되어 전 국민이 운동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체력 단련 관련 사업 활성화 지원과 피트니스, 필라테스 등 시대에 맞는 운동패턴 연구를 추진한다.

김준수 을지대학교 교수는 “이번 MOU로 스포츠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시장 확대를 기대한다”라며 “을지대와 지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부생들에게 다양한 실무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래융합대학 휴먼서비스학부 아동청소년상담전공

## 을지대학교 홍은주 교수, 교육부·EBS 교육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상담 전문가 위촉

을지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아동청소년상담전공 홍은주 교수가 교육부와 EBS가 공동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 교육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의 ‘마음건강’ 파트 전문 상담가로 위촉됐다고 지난 3월 13일 밝혔다.

을지대학교 홍은주 교수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마음건강’ 전도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홍은주 교수는 ‘함께학교’의 ▲자녀교육 ▲법률 ▲마음건강 등 3개 상담 프로그램 중 ‘마음건강’ 파트에서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교사·학생 간 대화방법, 학업스트레스 해소 방법, 고민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다.

홍은주 교수는 “익명이 보장되는 ‘함께학교’의 마음건강 상담 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은주 교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전문상담위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입퇴교 판정위원 활동을 통해 가정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보호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 을지대학교 교무혁신처장과 을지아동발달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다.





을지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을지대학교, 스포츠·피트니스 최고경영자 FMP과정 제1기 수료식 개최



을지대학교의 보건복지대학원 스포츠·피트니스 최고경영자 FMP과정 제1기 수료식이 3월 27일 의정부캠퍼스 일현관에서 열렸다.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와 1기 수료생, FMP과정 강사진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료식은 교육과정 활동 영상 상영, 수료증 수여,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을지대학교 최고경영자 FMP(Fitness Management Program)과정은 스포츠, 의료, 뷰티 등 사업 분야의 CEO나 관리자급 중사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피트니스 헬스케어 인재의 실무 및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국내 최초의 피트니스 교육 프로그램으로, 을지대학교가 지난 1월 야심차게 개설한 교육과정이다.

10주간 달려온 이번 제1기 과정은 ▲피트니스 전략 ▲트렌드 ▲리더십 ▲전략 기획 등의 분야에 대한 강좌와 워크숍 등으로 진행됐다.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은 “최고경영자 FMP과정은 스포츠·건강 산업·의료 분야를 선도할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보건·의료 교육과 연구, 병원 운영의 노하우를 담은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라며 “여러분 모두가 넘치는 에너지와 정직한 직업윤리로 대한민국 스포츠·건강 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전문가가 되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개원 3주년 기념식



개원 3주년을 맞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원장 이승훈)이 4월 23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2층 일현홀에서 개원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병우 을지대학교의료원장, 이승훈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장, 주요 보직 교수,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미래 청사진 실현을 위한 단합의 각오를 다졌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경기도 주민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집 가까이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 병원의 장기적 목표”라며 “전문의 중심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 응급 진료 체계를 강화해 우수한 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필수의료로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했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계획을 내놔다.

첫 번째로 지역 내 응급 심뇌혈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체없이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지역 119 및 의료기관, 전문의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경과, 신경외과 의료진을 추가 영입해 24시간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시작하고 뇌졸중 환자의 체계적 치료와 관리를 위해 뇌졸중 집중 치료실도 확대했다.

두 번째는 지역 내 중증 환자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도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중환자학과를 신설하고 내과, 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2명 체제를 구축했으며 중환자실 병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소아응급의료 환경 마련을 위해 나설 계획이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지난 2월 경기 동북권역의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추후 지역에서 이송되는 소아응급환자를 더 많이 수용하고 24시간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인력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치위생학과, 임애정 동문(00학번),  
한림성심대학교 전임교수 임용



임애정 동문(00학번)이 2024년 3월자로 한림성심대학교 치위생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되었다.

임애정 동문은 “모교인 을지대학교에서의 첫 강의의 설렘을 기억한다 교수자로서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뜻깊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을지대학교 은사님과 선·후배의 도움으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연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장 임화정 교수는 “임애정 동문의 한림성심대학교 치위생학과 전임교수 임용 소식을 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치위생학과 교육 및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학생들의 미래 진로에 도움을 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는 2020학년도 취업률 우수학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치과 대학병원, 종합 병원치과, 치과병(의)원, 보건(지)소 구강보건실,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직공무원 등 다양한 취업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치위생학과 강서희 동문(17학번),  
성남시 9급 보건직공무원 합격



치위생학과(학과장 임희정)가 “2023년 경기도 성남시 보건직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자를 배출했다.

강서희 동문(17학번)이 경기도 성남시 지역 보건직공무원 분야에 응시해 지난해 6월에 치러진 1차 필기시험 8월, 2차 면접을 통해 44:1(2명 모집, 88명 지원)이라는 치열한 경쟁률 뚫고 보건직공무원 최종 합격이라는 경사를 맞았다.

중원구 보건소의 건강증진팀에 근무하고 있는 강서희 동문은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을 때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 드렸고, 바쁘신 와중에도 세심하게 상담해주신 덕에 보건직 공무원 꿈을 이룰 수 있었다”라며 “그 중에서 실습생 시절 막연하게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공무원이 되어 현장에서 보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당시 신경써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는 지역사회치위생학실습 교과목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을 제공하며,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치위생학과가 겹경사를 맞았다.

동문  
소식

미래융합대학  
휴먼서비스학부 학생회장 이주은

# 학부제 전환으로 새로운 출발

학교에는 올해 일부 학과의 ‘학부제 전환’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다. 휴먼서비스학부 역시 이번 학부제 전환으로 신설된 학부 중 하나다. 많은 학내 구성원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섞인 학부제 전환이었는데, 휴먼서비스학부 이주은 학생회장을 만나 학부제 전환으로 기대되는 부분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 등을 알아보았다.

최현민 학생기자 hmchoi0515@naver.com



##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휴먼서비스학부 학생회장을 맡게 된 의료홍보디자인학과 제33대 학생회장 이주은입니다.

## Q. 휴먼서비스학부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휴먼서비스학부는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전 생애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인간의 웰빙을 위한 레저, 예술, 복지, 상담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4차 산업 시대의 창의적,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합니다. 현재 휴먼서비스학부에 속한 전공은 총 7개로, 레저산업전공, 뷰티아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장례산업전공, 중독상담전공, 사회복지전공, 아동청소년상담전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Q. 학부제로 전환하면서 기존과 달라진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학생회비 납부와 행사 진행 방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입학한 학부 신입생은 학부 단위로 학생회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학부생은 전공을 2학년부터 선택할 수 있는데, 그전에 다양한 전공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전공이 아닌 학부 단위로 학생회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학부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전공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전공 체험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 Q. 학부제 전환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기존 바이오융합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전공에서 다른 전공으로 변경 희망 시 전과, 복수전공 등의 방식을 택하여 전공을 변경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공선택의 폭이 넓은 학부제로 변경됨에 따라 1학년은 진로 및 전공 탐색 과목을 수강하고, 2학년으로 진급 시 자신의 전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정한 전공은 3학년 1학기까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서, 기존처럼 전공 변경을 위해 어렵고 복잡한 방법을 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생들은 다양한 학문을 접하면서 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Q. 학부제 전환을 놓고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포함한 학부 구성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 학부제 전환 소식을 들었을 때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과와 학부는 엄연히 다른 체제이고, 운영방식 또한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학부제로 전환되면서 바뀐 점도 많았지만, 학부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수님들과 각 학부 학생회에서 큰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덕분에 현재까지는 신입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Q. 신설된 학부의 초대 학생회장으로서 느끼시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휴먼서비스학부를 포함한 모든 학부가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학부 관리 체제가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전례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회비 금액 산정, 학생회 인원 모집, 신입생 OT 및 개강총회 행사 진행 방식 등 모든 부분을 새롭게 계획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또한 신설된 학부를 관리할 책임자가 기존 바이오융합대학 학생회장들이라 보니, 학부와 학과 모두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 Q. 올해 휴먼서비스학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다양한 전공을 접할 수 있는 학부제의 장점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별 전공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휴먼서비스학부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체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전공 체험 부스에서는 각 전공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니, 휴먼서비스학부생들은 꼭 자신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전공 부스에 참여해서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 Q. 휴먼서비스학부 학생들이 대학 생활 중 얻어갔으면 하는 건 무엇인가요?

신입생들이 그때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누렸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합니다. 먼저 입학하여 대학 생활을 해본 선배로서, 1학년 때만 경험 가능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입생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휴먼서비스학부 학생회에서 신입생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Q. 휴먼서비스학부 학생회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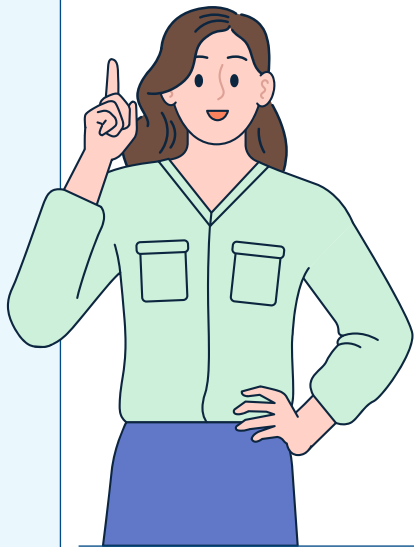
휴먼서비스학부 신입생과 학생회 모두 무탈하게 일 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휴먼서비스학부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신입생들이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을 눈에 가득 담고 싶습니다. 소박한 꿈일지 모르지만, 휴먼서비스학부 학생회장으로서 제일 뿌듯한 순간은 학우들이 행사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인 것 같습니다. 행사를 기획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싹 잊히는 느낌입니다.

## Q. 마지막으로 휴먼서비스학부생을 포함한 모든 을지대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한 장의 백지와 연필을 준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흰 종이 안에 무엇을 그릴지, 어떻게 접을지, 종이와 연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형태는 무한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종이에 연필로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고, 종이를 접어보는 것과 같이 무엇이든 시도하고 경험하면서 배운 지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지나온 시간과 노력이 모여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휴먼서비스학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는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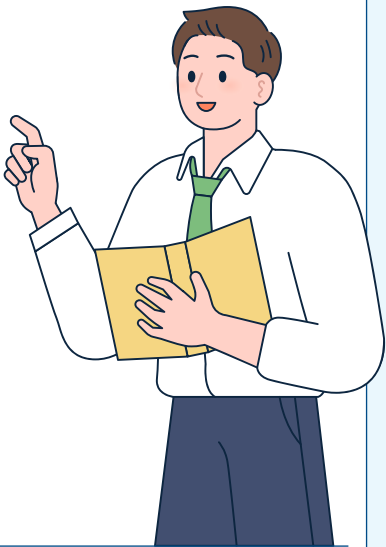






# 신입생을 위한 성남캠퍼스 교내 편의시설 안내

이번 24학년도 신입생들을 위해 교내에 위치한 여러 편의시설들을 알아보았다.  
통제된 고등학교 안에서만 생활하던 작년과는 다르게  
새로운 환경에 놓인 학우들을 위해 학교에 쉽게 적응하고 발 붙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다 효율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알아 두면 좋을 학교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휴식을 권장한다.



## 범석관, 뉴밀레니엄센터 GS25 편의점

>>>

각각 범석관 1층, 뉴밀레니엄센터 1층에 위치한 편의점으로 학식을 먹지 못하는 날에 밥이나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 먹을 수 있는 시설이다. 신상품 업데이트가 비교적 빠른 편이고 편의점 앞 라운지에서 취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

\*범석관 편의점 운영시간: 평일 07:00~18:00,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뉴밀레니엄센터 편의점 운영시간: 24시 무인 운영  
(단, 건물 개관 시간에 맞춰 평일 06:00~23:00, 주말 운영 유동적)

## 창의관 4층 학생 휴게실

>>>

재학생들을 위한 휴게실이 2024년부터 재단장하였다. 전보다 깔끔하고 정리된 시설물로 공간에 갈 곳 없는 학우들에게 편안함을 준다.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어 조용한 환경을 유지한다.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휴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 범석관, 뉴밀레니엄센터 coffe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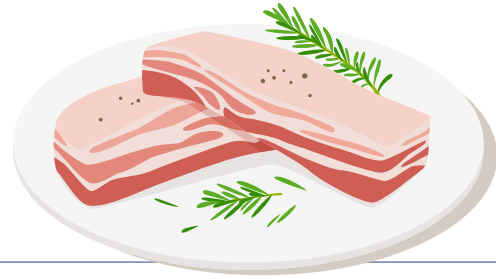
을지대학교 교내 카페 커플(coffeul)은 커피(coff)와 을지(eul)의 합성어로 교내에 위치한 커피숍이다. 자리가 넓고 규모가 큰 편이라 학우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근 프랜차이즈보다 값싼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기가 상당하다.

\* 운영시간: 평일 08:30~17:30,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범석관, 뉴밀레니엄센터 모두 동일

삼겹살을 샀는데 살코기가 없다

## 비계 삼겹살 논란에 얽힌 사회 현상과 규제 방안

강주연 학생기자 0519jenny@naver.com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하얀 비계가 대부분인 삼겹살 사진이 게시되자 누리꾼들은 “너무 심하다”, “당장 환불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계 삼겹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비계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과지방 삼겹살 사진들과 이 때문에 분노하는 소비자들의 글을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일명 ‘비계 삼겹살’ 유통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전국적으로 삼겹살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 간 의견 차이까지 생기며 정부가 삼겹살 품질에 개입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어 비계 삼겹살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속출하는 비계 삼겹살 피해, 모두가 부정하는 책임

작년 삼겹살데이(3월 3일) 이후 소비자들의 비계 삼겹살 피해 신고가 속출하며, 삼겹살 유통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업계에 대한 비난 및 입장 표명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각 업계에서는 각자의 사정을 제시하며 비계 삼겹살 논란에서의 책임을 부정했다. 비난의 중심에 선 식자재마트들은 지방이 많은 삼겹살을 대량으로 제공하는 육가공업체와 비계 많은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 문제가 있고, 애초에 비계 삼겹살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축산농가가 돼지를 사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가공업체들은 “작업라인이 컨베이어 벨트로 자동화되어 있지만 각 가공라인에서는 수십 명의 작업자들의 손을 거치고 있다”라며 고의적인 비계 삼겹살 제공에 대해 부정했다. 한편 농가들은 “겨울철에는 돼지가 체온 보호를 위해 지방을 축적하기 때문에 비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돼지 경락값이 생산비 밑으로 하락해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도, 고병원성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등 질병 확산으로 수급 불안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경고음도 비계 삼겹살 논란에 묻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돼지 사육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지방 1cm 두께 제한, 합리적인 조치일까?

각 업계 간 갈등과 삼겹살 비계 규제에 대한 필요성 제기가 계속되자 작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해 논란 진화에 나섰다. 해당 매뉴얼에는 소포장 삼겹살 정성 때 지방 두께를 1cm 미만으로 관리할 것을 업계에 권고하고 과지방 부위는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비계 삼겹살을 근절하고 먹거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소비자와 업계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육가공업체는 지방 1cm라는 기준은 식자재마트들이 고객 민원을 피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민간 대기업이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정부에서 현실적인 고려 없이 취합해 매뉴얼로 만든 것을 비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삼겹살은 용도에 따라 비계 함량이 다르고 지방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에 맞춘 요식업계 트렌드도 있는 상황에서, 지방 두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양성 저해로 이어지고 나아가 산업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방 두께를 1cm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삼겹살은 도축단계에서는 지방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고, 최종 지방함량은 소분할업체의 정선 과정에서 결정되는데, 소분할업체가 전국에 5만 개 이상이고 소규모 업체도 많아 그 비용을 감안할 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육가공업체들은 최근 수율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지방이 많은 돼지를 출하한 생산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도 있다.

### 새롭게 개정되는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매뉴얼이 여러 한계에 직면하며 비계 삼겹살 논란은 최근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비판을 반영하여 ‘과지방 삼겹살 원인 및 개선 방안’을 새롭게 발표하고 지난해 관련 업계에 배포한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도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첫째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권장 포장 방식과 과지방 부위의 눈속임 판매를 지양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등과 협조해 삼겹살의 모든 슬라이스가 보이게 펼쳐서 길고 투명한 용기에 포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제 소비자들은 삼겹살을 구부러서 포장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인 지금에서, 두 겹으로 겹쳐지지 않고 넓게 펼쳐져 비계 정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둘째로 삼겹살 지방의 특성에 따라 종류를 분리하고 부위별 돼지 지방 특성 정보를 제공한다. 농림부는 획일적인 기준 탓에 소비자에게 지방이 1cm 이상인 삼겹살은 불량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찌개용, 냉동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위도 폐기 대상이 될 수 있어,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비계 삼겹살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주체의 노력

올해 새롭게 개정된 매뉴얼을 통해서도 작년과 달리 비계 삼겹살 논란이 제대로 잠재워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소비자가 비계로 인해 그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삼겹살로 피해를 입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언제까지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호소된 눈으로 방관할 수 없으며 이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선 소비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 문제이다. 정부 차원의 규제를 통한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각 업계도 책임 전가에만 급급해하지 않고 실질적인 책임은 인정하고 양심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규제 과정에서 삼겹살 유통과정에서의 여러 업계의 현실적인 사정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생산자, 육가공업계, 대형유통업체 및 소비자 모두와 머리를 맞대고 삼겹살 지방 문제를 논의하며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그렇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은 어려운 것이다.

을지대학교 학보사

## 인스타그램&카카오톡 2차 인증샷 이벤트



‘제298호 을지대학보’를 읽고 가장 맘에 드는 기사를 골라 한줄평과 함께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024. 5. 3(금) ~ 2024. 5. 27(월)
당첨자 발표	2024. 5. 31(목) 예정, 학보사 SNS 공지 및 개별연락
당첨 인원	20명
이벤트 상품	문화상품권 1만원
문의	031-740-7126 / 카카오톡 채널 ‘을지대학교 학보사’

이벤트 참여방법	① 학교 홈페이지 및 학보사 SNS의 링크에 있는 학보 혹은 교내에 비치된 종이 학보를 열람한다. ② 학보사 <b>인스타그램(@eulji_press)</b> 을 검색하고 팔로우한다. ③ 학보에서 마음에 드는 기사를 찍거나 캡처한다. ④ 인스타그램 게시물 및 스토리로 학보사 인스타그램 태그 및 한줄평을 작성하여 업로드한다.
----------	---

- 유의사항**
- ① 인스타그램 비이용자는 **카카오톡 채널(을지대학교 학보사)** 친구추가 후 ‘SNS 이벤트 참여’를 클릭하여 해당 이벤트를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 ② 당첨자 발표일 기준 인스타그램 팔로우 및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닌 경우,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③ 비공개 계정은 업로드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④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벤트 참여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30년 불문율

## 문신사 합법화 논의

설지는 학생기자 jeseol2003@naver.com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기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 논의로 인해 지난 30여 년간 의사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의 문신은 위법이라는 불문율이 흔들리고 있다. 결정적으로 2022년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지인 등 3명에게 돈을 받고 눈썹 문신 기술을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문신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그사이 반영구 화장 등 문신 기술이 폭발적으로 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의료법 위반으로 논란되는 문신 기술

의료인이 아닌 누군가의 문신 기술이 불법인 이유는 1992년 대법원이 판결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았기 때문이다.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의료계는 범법자에 의한 문신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림프관을 통한 문신 염료의 이동으로 MRI 촬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림프종이나 피부 상피세포암 등 암 발생 위험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한국보건 의료원에 따르면 문신 부작용 사례로 발작·통증, 감염, 육아종 등 면역 관련 질환이나 문신 색소 퍼짐, 신생물(암) 등이 조사됐다. 또한 문신업자들은 2023년 영업을 위해 문신 기술에 사용할 국소마취제를 불법 유통 및 사용하다 적발된 바가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운영하는 채팅방에서 마취 크림 사용·구매하는 법, 마취 크림을 파는 약국 리스트, 업소 단속 피하는 법 등 갖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현재 비의료인은 문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의료용 니들(바늘)과 색소·마취 크림을 피부에 사용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 한국인들의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2022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신과 문신한 사람에 대한 인식에서 ‘불량하거나 무섭다’라고 답한 비율이 66%를 차지했다. 문신 문화에 개방적인 20·30대에서도 각 58%, 61%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심지어 ‘혐오스럽다’라고 답한 비율도 전체의 60%였다. 또한 전국의 주요 호텔의 경우 문신이 있는 고객의 수영장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긴 옷이나 래시가드 등으로 문신을 가려야만 입장을 허용하는 식이다. 한 호텔의 관계자는 “어린이를 포함한 전 연령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문신 사이즈가 큰 경우 래시가드 등을 무료 대여해 문신이 안 보이도록 양해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회사원은 “며칠 전 기차 안에서 팔토시 문신을 한 남자 승객을 보고 너무 무서웠다”라며 “문신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각적 공포를 야기하는 만큼 입장 제한 조치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적 수용과 규제에 대한 필요성

그런데 왜 문신사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일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문신 인구는 1,300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데이터리서치의 정기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제화에는 국민 절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한국리서치의 설문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견이 30%가량 높게 나왔지만, 문신사의 문신 기술 합법화에 대해서는 찬성 50%, 반대 44.3%로 집계됐다.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합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고 이런 분위기에 맞춰 정치권에서도 비의료인의 문신 기술 합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이 9개에 달했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 중앙회는 2023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현대사회에 만연한 문신에 대해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포기하고 죄 없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나라”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대로라면 한국에서 행해지는 문신 기술 중 99% 가까이 무면허 불법 기술인 셈인데, 부작용 및 위생 관리를 위해서라도 문신 업자의 기술 행위를 허용하여 정부 감독 아래 두는 게 낫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문신사 합법화의 논의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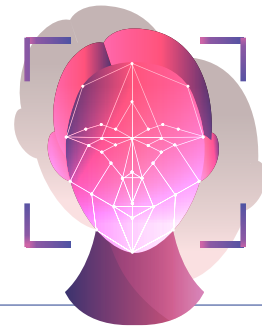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타투 등의 기술이 ‘합법’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타투 기술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며 공유하는 감염 지침이 있는데, 매년 지침을 갱신하고 통과해야 타투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각 스튜디오가 규정에 맞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위생 상태는 어떤지도 단속을 받게 된다. 조명희 보건복지부 의원은 문신사 합법화 법안에 대한 근거로 자격 규정과 교육제도를 확립한다면 기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과 K-뷰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근거를 내세웠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합법화 강행 시, 보건 위생 관련 위험성이 커진다고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그간 의료계는 비의료인에게 문신과 반영구 화장 기술 길을 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에 일본 역시 아직 규제하고 있다고 반박해왔지만, 2020년 일본도 최고재판소 판결로 비의료인도 문신 기술이 가능해졌다. 문신 기술을 의료적 지식이 풍부한 의료인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이미 많은 인구가 문신사에게 문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문신사 자격증 제도 등을 활용해 문신사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한국도 이번 보건복지부의 제도 마련으로 변화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만큼, 비의료인의 문신 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절묘한 가짜, 딥페이크

## 범죄에 맞서는 AI 탐지 기술

황하윤 학생기자 hyunn0429@naver.com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인 딥페이크가 가장난스러운 단순 유머 소재에서 악의적인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일일이 편집하지 않아도 몇초면 만들어주는 어플이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범죄율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부정확한 정보로 사람들에게 사회적 혼란을 주고 도모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범죄를 막지 못한다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은 어디까지 발전되었을까?

### 장난이 도를 넘은 순간

4차 산업을 이끄는 기술들 중 특히 인공지능이 화제가 되고, 발전하면서 이를 편리성을 위해 서가 아닌 누군가를 끌어내리려는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딥페이크(deepfake)란 용어는 인공지능 기술의 하나인 딥러닝(deep learning)에서의 딥(deep)과 ‘가짜’를 의미하는 단어인 페이크(fake)의 합성어이다. 크게 딥러닝과 생성적 적대 신경망인 GAN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GAN이란 생성모델과 판별모델이 경쟁하면서 실제와 가까운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식의 하나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정 분야 실제 예제들을 학습하고 공통점을 추론하여 매우 정교한 위조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진짜 지폐와 위조지폐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GAN의 원리이며 인공지능끼리 서로 누가 더 똑똑한지를 겨루게 해 더 나은 쪽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딥페이크에 적용하게 되면 합성된 동영상이나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영상이 만들어진다. 본래는 영화나 게임 산업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과했다. 그러나 장난용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으로 누군가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유흥으로 여겨 소소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정도가 심해져 문제가 된 것이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주에 들게 되었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진화로 딥페이크의 합성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딥페이크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까지 심각성이 번져 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같은 기관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허위 정보 대응책을 더 엄격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내 얼굴이 불특정 다수의 유흥거리로

딥페이크로 인해 누군가의 얼굴이 음란 매체에 합성되어 전시된다거나, 본인이 관련되지 않은 예민한 주제에 오해를 받은 상황은 생기는 등 여러 범죄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청소년을 타깃으로 삼기도 하며 사회 초년생은 물론 남녀노소 모두 예외는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020년 6월 기준 473건에서 2023년 8월 기준 3,046건까지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영향력 큰 인물들이 피해자로 속출되기도 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의 경우,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인 ‘딥트레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의 96% 정도가 불법 음란 동영상이고, 그중 약 25%가 한국 여자 연예인을 합성해서 만든 영상이라는 조사가 나오면서 더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하지만 딥페이크 악용 사례의 발전만큼 범죄를 막으려는 노력도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 정부도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며 유럽 연합(EU)은 더욱 광범위한 AI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관련 범죄 단속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 아름이 있다면 빛도 존재하는 법

기존의 딥페이크 탐지 모델은 해외에서 제작돼 서양인 위주의 데이터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었기에 한국에서는 탐지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새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인물 5,400명의 데이터 520만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이 이뤄져 새로운 형태의 합성 영상이 발견되어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AI 모델을 적용하였다. 진위 여부 탐지율은 약 80%이기에 아직은 불안한 수치일 수 있으나 경찰은 학계·기업 등 AI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교차검증을 받아 소프트웨어의 탐지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이는 아직 발전 과정에 불과하다. ETRI(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는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성과 관련 융·복합기술 분야에 기여중인 기관으로 이미 2019년부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웹하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유해성을 검출하는 시스템이고 판단 정확도는 99.4%이상이며 검출 속도는 0.01초 이하라고 한다. 이 기술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2023년 12월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딥페이크 제작 및 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렇기에 AI 탐지 기술은 빠른 시일 내로 탐지율을 높여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무리 교묘한 범죄라도 범죄자들 뒤를 선한 기술력과 법안이 빠른 속도로 추적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 찰나의 경각심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사례와 그를 저지하기 위한 AI 탐지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런 연구들이 이어지다 보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영상물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되는 양상이다. 더불어 딥페이크 기술이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17조 5항에 따르면 허위사실로서 사회공중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거나 국가기관의 신용을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영리 목적이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 또한, 제작을 의뢰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괴로울 바에는 떠날래요

## 대퇴사시대

박은서 학생기자 enhfarm@naver.com



이제 Z세대의 특성을 다루는 각종 콘텐츠들은 식상할 지경에 이르렀다. 동영상 플랫폼에서 쏟아져 나오는 빠 있는 풍자와 표면적으로 드러난 세대 간 갈등이 심심치 않게 화두에 오르고는 한다. 하지만 '요즘 애들은 말이야'가 Z세대의 전부는 아니다. 새로운 가치를 찾아 얼마든지 직장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찾는 20대, 30대가 늘고 있다. Z세대는 단순히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회사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회사를 떠나고 있는 걸까? 퇴사의 물결이 심상치 않게 번지고 있는 지금, 그저 일하기 싫어서 나타나는 현상 같지는 않다. 무엇이 청년들을 퇴사로 이끌고 있는지 알아보자.

## 과로? 차라리 퇴사를 택하는 청년들

2023년 5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졸업 후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개월가량에 불과했다. 청년층이 졸업 후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10.4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이다. 고진감래했건만 이들이 귀하게 얻은 첫 동지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보수, 근로 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45.9%)으로 가장 높았다. 계약기간 끝남(14.7%), 건강, 육아, 결혼 등 개인, 가족적 이유(1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이 근로 여건을 이유로 회사를 떠나고 있다. 2022년 기준 OECD 37개국의 연 근로 시간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연간 15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회사를 떠난 청년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오래 기본 매너로 여겨지는 삼십 분 일찍 출근하기, 상사가 퇴근 전 부하 직원들이 먼저 퇴근하면 예의가 없다고 여겨지는 등 약속이 남아있다. 얹친 데 얹친 격으로 퇴근하면 여유시간도 없고, 몸이 아파더라도 쉽사리 쉴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힘들더라도 참고 회사와 단체의 발전을 위해 청춘을 바쳐 일하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한국 사회에 뻗속 깊이 남아 있는 '개근이 최고야'를 Z세대는 답습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 부업도 MZ답게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서는 깃이코노미(Gig economy) 현상에 주목했다. 깃이코노미란 단기 임시직을 뜻하는 말로, 쉽게 말해 부업과 비슷한 개념이다. '부업으로 월 000만 원 수입 창출하기'와 같은 제목의 동영상에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만 봐도 청년층이 고정 월급 외의 추가 수입원에도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깃이코노미 현상은 청년들의 금전적 압박감으로 인해 나타난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단기로, 또는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택하는 사람 역시 많다는 점이 특이하다. 배달, 대리운전 등 전통적인 부업도 있지만 특기를 살려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하거나 쇼핑몰 등 본인만의 가치를 창출해 그것을 판매하는 형태의 부업이 더욱 인기인 이유다. 이처럼 본인만의 작은 사업인 부업을 차근차근 발전시켜 퇴사를 해도 일상에 무리 없을 정도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Z세대 'N잡러'들의 특징이다. 단순히 부수입을 위한 부업이 아닌, 자아실현을 위해 자신만의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전 세대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의 가치를 창출해 그것을 판매하는 형태의 부업이 더욱 인기인 이유다. 이처럼 본인만의 작은 사업인 부업을 차근차근 발전시켜 퇴사를 해도 일상에 무리 없을 정도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Z세대 'N잡러'들의 특징이다. 단순히 부수입을 위한 부업이 아닌, 자아실현을 위해 자신만의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전 세대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여전히 중요한 것은 안정감

전통적인 가치와 새로운 신념 간의 충돌은 늘 뜨거운 감자다. 세상이 급변하는 만큼 예전에 머무르기에는 청년은 혈기왕성하기 때문이다. 그저 성실함이 최고라는 기성세대의 조언과 우려가 갑갑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전통을 그저 고루함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 놀라앉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 여기던 과거의 인식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되어주었다. 그에 반해 '젊은 피' Z세대는 노동강도와 딱딱한 업무 환경이 불편해 줄퇴사가 이어지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주식이나 코인 등 가치의 상승과 하락이 일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입을 얻어 총동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보통 주식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마이너스 통장 이용객 중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일 고공행진이다.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또 업무 환경이 맞지 않아 퇴사하는 것은 존중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떻게든 될 거라는 마음으로 저지르기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꿈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단기성 투자나 주식 등에 집중하는 것보다 본인만의 아이템을 만들어 그것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설적이다. 결국 실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시간이 흘러도 안정적인 기반의 중요성은 바뀌지 않았다.

##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업무시간 단축, 자유로운 휴가 사용 등이 보장된다면 사회 초년생의 퇴사율에 큰 영향을 미칠까? 근무 환경의 개선은 퇴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지만 그것이 Z세대가 일찍 회사를 떠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과 경쟁해 좋은 직장에 들어간 뒤 돈을 모아 좋은 집에 사는 게 최고로 여겨지던 시대는 지났다. 풍요로움이 되레 독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남들의 선망을 받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모두들 팔색조가 되려고 한다. 하지만 청년들은 틀에 박힌 팔방미인이 아닌, 자신만의 색을 갖춘 채 빛나기를 원한다. 겉으로 보이는 가치는 올라가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깊이 묻어두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삶. 그것보다 조금은 불안정하더라도 뛰쳐나와 하나씩 꾸려나가는 인생을 원하고 있는가? 철저한 계획과 함께라면 그 도전이 무엇이든 응원한다.



# 롤러코스터만큼 역동적인 한국 테마파크의 역사

설렘과 환호성이 가득한 곳,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 어떤 장소가 떠오르는가? 바로 테마파크다. 화려함으로 눈을 사로잡는 퍼레이드,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놀이기구, 오감을 자극하는 음식 등으로 대표되는 테마파크는 마치 동화 속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비현실적인 기분을 느끼게 한다.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추억을 쌓기 위해 테마파크를 찾는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분명 테마파크에 방문한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이 되며 아이가 있는 가족을 포함한 많은 방문객이 몰리며 전국의 테마파크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행복과 낭만이 가득할 것 같은 테마파크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 그 시초는 궁궐이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정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테마파크는 특정 주제를 기반으로 연출되는 관광 시설을 말한다. 놀이공원, 박물관, 호텔, 상업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정한 공간에 특별히 선정된 일관된 주제로 설계된 조경, 건축물, 공연, 놀이 시설, 식음, 상품,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형식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테마파크는 방문객에게 일상과는 다른 비밀상의 경험을 체험하여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첫 테마파크는 어디일까? 그 역사는 대한제국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09년, 일본 제국에 의해 창경궁에 동물원, 식물원이 설치된 것이 시작이다. 이후 대한제국의 국격을 저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경궁은 창경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본래 설립 목적은 고위직들을 위한 작은 정원에 가까웠지만, 후에 시설을 확장하여 민간에 개방하였다. 하지만 당시 조선인 노동자 평균 일당의 1/4에 해당하는 비싼 입장료 탓에 개방 초기에는 사실상 일본인만이 입장할 수 있었다. 1924년부터 야간 벚꽃놀이(야앵)가 시작되며 조선인을 포함한 입장객 수가 급증했다. 야앵은 단순히 밤에 벚꽃 구경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시선을 빼앗는 화려한 전등, 음악 연주, 기생들의 검무 등이 펼쳐지는 조선 유일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장소였기에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야앵 기간에는 사람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경성 인구의 약 10%가 창경원에 방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니,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아동을 위한 놀이터가 설치되는 등 점차 테마파크로의 구색을 갖추었다. 그러나 광복이 가까워지며 일본 제국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창경원은 방치되었고 연이어 6.25 전쟁이 발발해 이전 모습은 거의 남지 않은 폐허가 되었다.

## 전쟁의 아픔을 딛고 경제와 함께 성장하다

3년에 걸친 전쟁이 끝나고 창경원과 근방의 궁궐을 포함한 대규모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케이블카, 회전목마 등 현대의 테마파크와 유사한 놀이기구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의 유일한 테마파크였던 창경원은 전쟁 이후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더불어 발 디딜 틈 없이 인기가 많았다. 일례로 1970년대의 서울 지역 초등학생 중 창경원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없었을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체감할 수 있다. 이후 1973년 어린이날에 맞춰 개장한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등장으로 아쉽게도 유일한 테마파크 타이틀을 내주게 된다.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 규모의 종합 어린이 놀이 시설이었던 어린이대공원은 국내 최초 고속 놀이기구인 '청룡열차'를 필두로 다양한 종류의 놀이기구를 선보여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에게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1977년 어린이날에는 무려 하루 관람객 수가 73만 명을 웃돌았다는 점에서 그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폭발적 인기를 누리던 어린이대공원은 곧 창경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올랐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옛 창경궁으로의 복원이 시작되었고, 두 테마파크의 양강 구도는 창경원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됨

과 동시에 막을 내렸다. 이후 그 빈자리를 한국 민속촌, 용인 자연농원(현 에버랜드)이 대체하며 한국 테마파크 시장의 본격적 막이 열렸다.

## 현실적 한계를 마주한 한국 테마파크

1980년대에 들어 우리에게 익숙한 서울랜드, 롯데월드 등 설립 초기부터 대규모 놀이기구를 갖추고 본격적인 놀이공원의 형태를 한 테마파크들이 생겨났다. 서울랜드는 과천, 롯데월드는 잠실이라는 엄청난 지리적 이점을 자랑하던 이들은 개장과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모든 테마파크가 봄볕었던 것은 아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장한 테마파크 중 많은 곳이 IMF 전후로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장하거나 방치되었다. 대다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한국의 특성상 마땅한 부지를 찾기는 매우 어렵기에 사업 시작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놀이기구 중심의 테마파크 문화로 변화하며 고가의 설치, 유지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2010년대 들어 비교적 금전적 영역에서 자유로운, 막대한 자본을 가진 외국계 테마파크 업체들이 한국에 새로운 테마파크를 건설하려 했으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테마파크 사업 특성상 빈번히 사업 무산의 고배를 마셨다. 2020년에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 관람객 수가 줄어들어 직격타를 입은 기존의 테마파크들이 입장료를 인상하고 새로운 유료 줄서기 면제권 등을 내놓는 등의 방안을 내놓아 방문객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미미해진 지금은 유명 캐릭터와의 협업, 다양한 할인 이벤트, 놀이기구 업그레이드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방문객을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다.

## 추억은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에서 시작한 한국의 테마파크는 대한민국 국민의 급격한 생활 수준 향상과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국민의 전 생애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학교 시절 창경원에 방문했던 할머니, 친구와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 에버랜드에 방문했던 어머니, 퍼레이드를 즐기러 부모님과 함께 롯데월드를 방문한 자녀까지 세대는 달라도 테마파크에 얽힌 각자의 하나뿐인 추억이 있으리라 확신한다. 여타 해외의 초대형 테마파크와는 다른, 한국의 테마파크만이 가진 특별함과 소중함이 있기에 현재까지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꾸준히 사랑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번 기사를 통해 테마파크에 얽힌 추억을 다시 꺼내 상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운 테마파크에 한 번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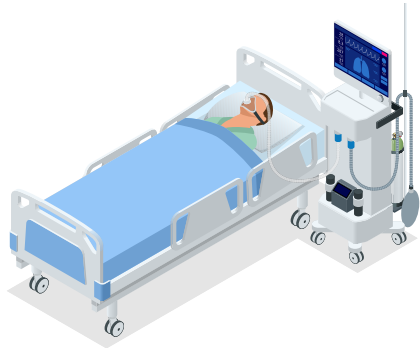
김태경 학생기자 eunursing@naver.com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인가, 생명 경시인가

# 죽을 권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월 중 조력 사망에 대한 법안의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이 “우애의 법”(Loi de Fraternité)이라고 표현한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프랑스에서는 죽을 권리를 성문화하게 됨과 동시에 현재는 불법인 안락사 및 관련 쟁점들이 합법화될 수 있다. 이미 스위스, 네덜란드와 같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네덜란드의 전 총리 드리스 판아흐트는 아내와 함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하지만 프랑스 주교단은 마크롱의 연행을 기만이라고 표현하는 등 종교계에서는 죽을 권리의 보장에 거센 반발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관련된 논쟁이 끊임없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 죽을 권리에 대한 학생 기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맹지환 학생기자 chungchungang@naver.com

**찬성 🟢 설지은 학생기자:** 나는 죽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해. 서울대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안락사나 조력 자살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어. 특히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60%를 넘어섰고,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에 그쳤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긍정적 비율이 더욱 높았고, 그 이유로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가 꼽혔어. 이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거수일투족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병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권리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사회적으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죽을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반대 🟠 윤채연 학생기자:** 하지만 단순히 존엄성을 위해 죽을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봐.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본인이나 가족이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약물로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나 조력 자살까지 허용된다면 사회 내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특히 조력 자살은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적용되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안락사가 법률적으로 다뤄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섬뚱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고, 자칫하면 생명 경시의 우려마저 생길 수 있어.

**찬성 🟢 최현민 학생기자:** 나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물론 존엄성은 그 어떤 가치와도 맞바꿀 수 없는 최우선적인 가치인 건 변함이 없어. 하지만 호흡만 유지하며 누워있는 상태가 과연 인간이 존엄성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해. 만약 죽을 권리가 인정된다면, 불치병을 앓고 있거나 현재의 의학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으며 기약 없는 싸움을 해나가는 이들을 도울 길이 생길 거야. 죽음 또한 삶의 일부일 텐데,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을 최소한의 고통으로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게끔 돕는 일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일이라 생각해.

**찬성 🟢 최은진 학생기자:** 맞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2년 82.7세로 반세기만에 20여 년이나 증가했어. 이러한 수치는 의학의 발전을 통해 수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인지 생을 어떻게 잘 마감

하느냐가 그동안 살아온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지. 작년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31만여 명의 사람 중 약 75%가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이중 상당수는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연장 치료를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했어. 이렇듯 의미 없는 죽음을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야. 프랑스가 조력 사망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죽을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법안을 추진해야 해.

**반대 🟠 황하윤 학생기자:** 하지만 의료진의 오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실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그리고 나는 죽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죽음을 집행하는 의료진의 입장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 실제로 외국의 사형집행인들이 가진 정서적 트라우마는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어. 또한 WHO의 조사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이 평균 5-10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조력 자살과 같은 죽음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이렇듯 현재의 사회 제도와 상황이 안락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는 개인에게 죽음의 선택권을 제공하기 보다는 더욱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고안해야 해.

**반대 🟠 이민서 학생기자:** 나도 하윤이의 의견에 동의해. 미국의 시사 매체 내셔널 리뷰가 보도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안락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분석한 기사에서 저자 웨슬리 스미스는 “사회가 한 번 고통에 대한 답을 죽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죽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고통은 끊임없이 확장돼 갈 것”이라며, 안락사가 공공의 도덕성과 인간의 양심을 타락시키며 “존엄한 죽음이라는 유혹에 저항하지 않으면 ‘죽음의 문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어. 죽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고 안락사를 지원하기보다는 심리·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앞서야 할 거야.

삶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맞이하는 것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의견부터 안락사 보다는 심리·정신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학생기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전보다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기결정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마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권리 주장에만 급급한 채 여태껏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묵과하는 것 또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죽음이라는 중대사를 다루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듭하며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제297호 학우들의 소리엽서

### 제297호 소리엽서 퀴즈

**Q. 소비자가 인플레이션을 인식했다라도 지출하는 돈은 동일하므로 그에 따른 반발 심리가 덜하다. 이에 경제학자는 기업들이 ‘슈링크플레이션’을 선호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돈의 실질적 가치보다 명목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현상은 무엇일까?**

297호 소리엽서 퀴즈 정답

화폐 환상

### 제297호 소리엽서 당첨자

간호학과(성남) 안미선, 간호학과(의정부) 남지우,  
간호학과(의정부) 설지은, 임상병리학과(성남) 윤지안,  
임상병리학과(의정부) 이하은, 치위생학과 이주현,  
식품산업외식학과 이서영,  
중독재활복지학과(의정부) 김근아, 의학과 장세희

“여러분은 을지대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갈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후원방법 01

QR 코드를 통한 신청서 작성



후원방법 02

앱 사용(신한은행 SOL 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후원방법 03

지로통지서 후원(지원금액 자율)

인터넷지로([www.giro.or.kr](http://www.giro.or.kr))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MICR 지로영수증 (고객용)

지로번호 7559635

금 액 30000

주 소

후원자명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금융기관의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20 년 월 일

을지대학교 (발전기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전화 : (031) 740-7467

팩스 : (031) 740-7469

금융결제원 승인 제119630호 지로통지서 (금융기관용)

MICR 지로번호 7559635 금 액 30000 원

【기입요령】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입예와 같이 정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기입예】 1 2 3 4 5 6 7 8 9 0

주 소

후원자명

전화번호

을지대학교 (발전기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전화 : (031) 740-7467 팩스 : (031) 740-7469

한주전산(주) T.031-904-2510 ※ 이 쪽이는 「원큐터」로 처리되므로 구역지거나 위 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지 로 번 호 Code

7 5 5 9 6 3 5 1 3

※ 출연해 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298호 학우들의 소리엽서

저희 학보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모두의 학보를 만들어보고자 소리엽서를 받고 있습니다.

성의껏 작성하여 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Q1. 이번 호 기사 중 좋았거나 부족한 것은? (기사내용)

Q2. 다음 호에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인물추천, 기사 등)

소리엽서

제298호 소리엽서 퀴즈

Q. 딥페이크 제작 기술 중 하나로써 생성 모델과 판별모델이 경쟁하면서 실제와 가까운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기계학습 방식은 무엇일까?

정답

학보 배부대에 있는 소리엽서함에 넣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 온라인 소리엽서 제출 방법

① 카카오톡 채널 '을지대학교 학보사' 검색 후 친구 추가하기

② '채팅하기' 클릭 후 하단바의 '298호 소리엽서 제출' 클릭

③ 채팅 메시지로 안내되는 소리엽서 제출하기' 클릭 후 정보 입력하기

학과

학번

이름

연락처